

# “절부터 환경보호 모범”

사찰주변 환경훼손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사찰도 주변 환경보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자성이 대두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사찰환경위원회(위원장 능관·사회부장)가 지난달 26일 각 교구 본사 및 직할사암에 발송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공문은 사찰에서 행해지고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실행조사와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의 지구책이 중단차원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사찰의 생활오수가 인근 하천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과 관련, 내년 6월 30일까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는 사찰도 환경과괴로부터 더 이상 해방구가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한 행정 조치여서 주목된다. 이로써 조계종 산하 사찰은 29일까지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내년 6월30일까지 화장실, 후원등 생활오수에 따른 정화조, 쓰레기 소각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같이 실태조사나 시설설치는 우선 예산이 요구되므로 예산확보가 과제이다. 때문에 조계종 총무원은 행정명령 시행, 협조요구 등 원칙적인 선언서 입장보다는 구체적인 일선 사찰에서 할 수 있는 행정력과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사찰은 오수처리를 자연발효에 의한 전통방식에 의존해 왔다.

## 조계종 '사찰 환경시설 의무화' 의미

### 중단 현실직시 환경행정 '박수' 해당사찰 실행·예산확보 '관건'

그러나 최근들어 사찰 참배객 및 관람객 급증, 각종 세제사용 증가 등으로 이제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 사찰도 환경오염에 능동적인 대처를 해야 할 시점에 온 것이다. 사찰 생활오수가 인근 하천은 물론 계곡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대두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결국 사찰이 예전처럼 환경지킴이의 선봉

장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오수처리 처리 시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사찰측의 의식전환도 중요한 과제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 사찰이 생활오수로 인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고 소홀히 다루어 왔기 때문이다. 즉 후원의 배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생활오수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뭍리다' 대



◇불교운동본부 부는 복돋움포동기운을 교계 전체에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사찰은 불교운동본부의 '겨울웃보내기 운동'.

### 의약품 옷 보내기도 전개 두단체 따로 활동 '아쉬움'

## “16억 모금 동포아픔 함께했다”

### 교계 복돋움운동 전개 1년

동체대비 무아일체 사상의 실천으로 사부대중의 폭넓은 동참을 이끌어낸 교계 복돋움운동이 12일로 1년을 맞는다.

교계 복돋움운동은 작년 12월12일 우리민족서도돕기불교운동본부(집행위원장 법륜스님)의 발족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 5월6일 복돋움포동기운추진위원회(집행위원장 효림스님)가 결성되면서 복돋움운동은 전종단, 전국사찰로 확산됐다.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두 단체 모두 통일 준비하는 교계 공식기구로 도약하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단체의 노력이 남북불교교류 등 문화교류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호보완,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정은 기자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이 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개원했다. 초대원장을 맡은 호진스님(불교학과 교수)을 만나 개원의 의미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었다. 스님은 내년 2월 도불(渡佛)하여 1년간 프랑스불교를 연구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편집자 주)



-연구원을 개원하게 된 계기와 의미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내년이면 경주캠퍼스 개교 20주년이 됩니다. 또한 불교문화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승격할지도 5주년이 됩니다. 이에 따라 불교관련학문을 심층연구할

## 수요 인터뷰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초대원장 호진 스님

## “불교연구와 사회실천 접목”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도 절실했습니다. 연구소보다 격을 높인 연구원(院)을 설립함으로써 서울캠퍼스의 불교문화연구원과 더불어 본교는 2곳의 불교연구원을 갖추게 됐습니다. 기존의 불교문화·불교이론 중심의 연구뿐만 아니라 불교사회·불교실천 연구를 집중시킴으로써 명실공히 대중을 향한 불교사회·문화를 꽃피운다는 취지로 개원하게 됐습니다. 각종 연구소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어 이번 연구원 설립이 쉽지 않았습니

다. 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가 있고 산하에 불교학·선문화·불교아동·불교예술포럼·불교사학 등 5개 연구부서가 설치되어 각각의 분야를 연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선문화연구부는 선학·선사상·선실천 등에 대해서, 불교사회연구부는 불교복지·불교의학·불교과학 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됩니다.

이들 연구부는 매년 학술회의와 학술강연회를 개최하며 관련 연구논문과 서적을 출간하게 됩니다. 또한 불교관련 자료수집은 물론 국내외의 유관단체나 학회와의 학술교류 및 제휴를 통해 연구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조직구성과 재원마련 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외에 각 부서별 부장과 다수의 연구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간사와 연구원, 조교가 있어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연구원은 각분야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전문교수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종장적연구에 속하게 되며 불교문화연구원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지역사회의 관련된 불교연구등을 연계시켜 특성화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금과 학술용역사업·출판등을 통한 수익금으로 운영됩니다.

-앞으로의 발전구상이 있으신다면.

▲본 연구원은 한국불교의 요람인 신라불교의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역의 불교사회·문화연구의 메카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습니다. 불교와 관련된 제반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해 현대와 미래의 불교에 방향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불교 싱크-탱크(Think-Tank)로서의 역할을 할 작정입니다.

-내년 2월 프랑스에서 불교학을 연구하신다는데...

▲특별한 연구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불교를 한번 더 살펴보고 싶었던 차에 시간이 허락돼 결심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의 여러나라 가운데 불교학인이 가장 발달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동안 유럽 불교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해 후학 지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경주=이윤호 기자

“누굴 찍을까” 대통령 투표일이 1주일밖에 안났는데, 아직도 마음속에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많다고 한다. 미디어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92년 제14대 대선에서는 1주일전까지 지지후보를 결정 못한 유권자가 약 32%였다. 마음에 드는 대통령령을 못찾아 이리저로 저리저는 부동파다.

부동산이 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일이나 어찌 소홀할 수 있겠는가. 누가 진정한 지도자일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뽑을 수 있을까.

옛날 어떤 나라의 왕은 허름한 나라

## 목어

### “누굴 찍을까”

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보살폈다. 매달 나라일을 두루 순시할 때에는 수레에 의복과 약품 등 갖가지 생활용품과 함께 나가 가난한 사람과 병자에게 고루 나눠주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장례를 치러 주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을 만날때면 그것을 자신의 허물로 차책하였다. “내가 덕이 있었다면 백성들도 풍족하게 지냈는데, 내 덕이 부족한 탓으로 백성들이 가난하구나. 그러나 백성들의 가난은 곧 내 자신의 가난이나 다름없다.”(육도집경)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부분이다.

《중일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국왕으로서 다음 10가지 일을 이루는 자는 장구하지 못하고 나라에 도둑이 많이 생기리라. 인색한 나머지 작은 일에도 노여워 도리를 살피지 않는다. 재물에 집착한다. 남의 말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백성들의 재물을 함부로 뺏는다. 그곳된 일을 도와 바른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의 여인에 집착한다. 술을 좋아해 정사에 소홀한다. 가무를 즐긴다. 긴 병을 지니고 있어 건강치 못하다. 충성스러운 신하를

신임하지 않아 강한 보좌자가 없다.” 비슷한 정제과 공약, 서로 비방하고 자기만 내세우는 말들만 가지고는 선택이 어렵다. 결단보지 말고 부처님 가르침에 비추어 후보들의 속살림을 들여다 보자. 백성의 가난을 자기 허물로 여길 수 있는지, 마음이 넓은지, 재물을 멀리하고 여물을 수렴하는지, 상량관단을 잘하고 건강한지, 충성스런 신하가 많은지 눈여겨 보자.

그러한 나라의 밝은 미래를 밝힌하면서 소중한 환포를 적자.



## '97 문화유산의 해

### 12월 테마여행 - 제주도 법화사지 외

#### “부처님 제자가 탐라에 온 뜻은”

제주도에 부처님 제자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고려대장경)법주기에에는 석가모니 16제자 중 발타라존자가 탐라(제주도)에 불도를 전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라산 서쪽 기슭 존자암지가 그 초전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불교문화 테마여행은 또 하나의 한국불교 초전지 제주에서 대담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고찰은 없지만 제주도는 '절 500 당 500'이라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사찰이 많았던 곳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인 관음사를 비롯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안무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일약품

## “불교문화 테마여행”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법화사지, 국내 최대의 법당이 있는 약천사, 제주 유형문화재1호 5층석탑으로 유명한 불탑사 등의 사찰과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제주 불교의 맥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 안내

- 출발: 12월 13일(토) 오후 1시·김포공항
- 장소: 법화사지, 관음사, 약천사, 불탑사, 목석원, 금릉서굴원, 산방산, 수목원, 용두암 등
- 회비: 135,000원
- 안내: 강창화(제주대 강사)
-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한국불교 신종연합회 신학원중앙선원 중흥불사·천일기도첫百日 전국 禪院長·祖室·方丈스님 특별초청

## 千日기도 첫百日大法會 法水禪院 祖室 李性壽 大禪師 초청 제2회 한국불교전통선(禪) 중흥영산대설법회상

모시는 말씀

### 千日기도 첫百日大法會 法水禪院 祖室 李性壽 大禪師

제2회 한국불교전통선(禪) 중흥영산대설법회상

한국불교 신종연합회 신학원 중앙선원 중흥불사 개요

- 1차 ① 기와 개수공사 완료 ② 내부 페인트 공사 완료 ③ 단청불사 (34년만의 불사) 완료 ④ 가스배관공사 및 보일러실(5개를 하나로 하는) 공사 ⑤ 일주문전통양식 건립불사
- 2차 ⑥ 신학원중앙선원 단청불사, 중흥불사 千日기도 첫百日 전국선원장, 조실, 방장스님 특별초청 韓國佛敎傳統禪中興靈山大設法會上主儀 제1회-제10회(매월일각으로) ⑦ 신학원 창건 사적비 새움 (3.1 운동주도 구국원찰) ⑧ 한국불교계 정화불사 기념비 및 時代佛敎聖地 宣布法會 ⑨ 한국불교계 淨化史 발행

불기 2541년 (음)11월 13일

◆ 화 주 단

광자원실 이관용행 유정혜성 손진여실 윤보광실 정선덕행 송정현 신옥순 민경상실 권지예실 정본각실 박선혜실 이범향사 이보현실 김마하연 박보리성 오만덕실 김복덕실 박덕순화 이광덕 지재장 극성광성 고만덕실 김도원행 이보현실 운영위원일동

◆ 신 도 회

명예회장 염무영원 문양보타월 이선화회 이연희회 이종희 임공덕회 정본각성 회장 이범야행 최복식 유정혜성 황자계성 부회장 신성지행 이범향사 임향자 신원범성 총재 손진여실 이범야행

1 지역 회장 염무영원 2 지역 회장 유정혜성 3 지역 회장 최복식 4 지역 회장 황자계성 총합단장 유정혜성 총무 김진실행 최인순 박보리성 108보리심회 회장 박보리성 총신정회 남종무간사 여흥무간사 이상희 김근나

청년 회장 이상훈

◆ 약 력

- 서울조계사 주지 · 조계종 총무원장 · 지리산 황대선원 주지
- 부산 범어사 주지 · 세계불교 지도자대회(일본국주제)
- 가야산 해인사 주지 · 한국대포장식

한국불교 신종연합회 신학원 중앙선원 원장 삼장법사 윤성해 합장

불기 2541년 (음)11월 13일

TEL. 732-3327, 720-8583, 720-8584

주최: 한국불교 신종연합회 신학원 중앙선원·후재단  
주관: 신도회·운영위원회·합장단·108보리심회·선정회·청년회  
문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40